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6. 19(월) - 6. 24(토) 새벽 5시 - 6시 / 강사 : 손달익 위임목사님

내일 6월 19일(월)부터 24일(토)은 홍해작전 마지막 주간으로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시간은 새벽 5시-6시까지이며 손달익 위임목사님께서 감사로 섬니다.

교회는 이 기간 중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

8층 만나홀에서 간단한 아침식사를 준비 중입니다.

2023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서울교회 한마음축제

7월 29일(토) 오전 10시 30분  
청평 소재 아가페타운  
오전 8시 교회 출발 예정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자는 의미에서 '한마음축제'라고 이름 짓고 체육대회와 찬양대회를 매년 번갈아가며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등의 이유로 몇 년 동안 대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올해 다시 '한마음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한마음축제'는 7월 29일(토) 오전 10시 30분 청평 소재 아가페타운에서 전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릴 예정이며 버스는 오전 8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회복의 의미를 담아 좋은 교제와 친교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욱 목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중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운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군의관)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호산나대학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용 컴퓨터 20대, 전자칠판 1대(1,400만원 상당) 지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총재 김용운)는 6월 13일(화) 호산나대학(학장 이동규)에 1,400만원 상당의 교육용 컴퓨터 20대, 전자칠판 1대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호산나대학은 전교생에게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특히 사무자동화학과에서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은 물론 취업을 위한 실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에서 기증한 교육용 컴퓨터와 전자칠판으로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 환경이 구축됨은 물론 수업의 질을 높일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용운 총재는 전달식에서 "업그레이드된 컴퓨터처럼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자신의 역량을 한층 성장시킬 수 있도록 배움의 끈을 놓지 말고 좋은 곳에 취업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김용운 총재(좌), 호산나대학 조성호 학생회장(우)



호산나대학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해 지원한 '컴퓨터와 전자칠판'을 활용한 컴퓨터 수업 참관

#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행 22:1-11)



손달익 위임목사

지난 수년간 한국교회의 상황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우선 한국 사회 전반의 교회를 향한 시선이 냉담하다 못해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이 냉담한 시선은 한국교회가 과연 한국 사회의 발전에 어떤 순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계 교회 앞에 부흥과 성장을 자랑하던 한국교회였는데 급격한 교인 감소현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의 더 깊은 믿음일 텐데 그럼에도 우리의 영적 자세는 오히려 현저하게 세

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라는 탄식과 질문이 터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영적 치유와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한국교회의 재부흥 운동을 견인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인가'라는 과제 앞에 서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의 마지막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행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만류할 때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 결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행 20:23-24)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두 주 간에 채 못 되어 유대인들의 반대시위와 살해위험에 직면했고 그를 해치려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로마군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그는 로마군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주위에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자기 입장을 변명하는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본문이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 1. 자기 절망의 절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철저한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과 가문 그리고 민족을 위한 최선의 길이고,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충성으로 여겼습니다.(3-4절)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광란의 질주를 계속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행 9:1)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의 길을 주 예수님께서 가로막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강력한 광채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은 그의 가는 길을 멈춰 세우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추궁하셨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라는 그의 화급한 질문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신앙과 소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누구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역한 것임을 발견했을 때 바울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끝난 인생이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새로운 삶을 위해 일어나 갈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일생의 모든 노력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고 민족을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해 온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악한 일이었음을 알았을 때 그는 절망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 새 일을 계획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희망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무엇 때문이라도 실망하거

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 2. 인생 목적의 재점검

예수님은 절망하고 절규하는 바울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다메섹은 본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 가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가던 길을 가라고 하시는 주님은 대신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을 바꾸라고 하십니다.(행 22:14-15)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바울의 질문에 주님은 '네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예수 믿으면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면이 새롭게 되고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것이 되는 결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관계의 변화이고 둘째는 목적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왜 사는지의 목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바울은 인생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행 20:24)이라 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전 10:31)고 했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빌 1:20)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의 목적을 바꾸었고 실제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 3. 자신감보다 비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역설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해 했습니다.(행 9:20-22) 바울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유대인 전도를 위해 최적의 조건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고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하여 불타는 마음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롬 9: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신이나 꿈을 절대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일생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깨닫고 이 일에 자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행 13장)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두 사람을 선교사로 안수하고 파송하여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했습니다. 이런 순종과 헌신은 기독교의 세계화를 불러왔고 세계 문명사를 획기적으로 새롭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고집과 자기 신념과 인간적 가치 판단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할 때 주님은 인생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우리 삶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고집과 자기 신념과  
인간적 가치 판단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특별새벽기도회와 부흥을 향한 찬양의 향기



김정훈 안수집사  
(2023 흥해작전 찬양분과장)

사랑하고 소중한 서울교회 가족 여러분,  
이번 흥해작전 찬양분과장 역할을 맡아 봉사하게 된 저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새벽기도회는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흥해를 건너기 위해 주어진 주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열심을 다한 서울교회의 모든 찬양대가 매일 새벽 찬양을 함께 선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능을 더욱 깊게 체험하고, 기도의 열매

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19일 월요일 새벽 5시 가브리엘찬양대의 '주님을 찬송하라'를 시작으로, 화요일 할렐루야찬양대 '부흥', 수요일 임마누엘찬양대 '은혜의 찬양', 목요일 은빛찬양대 '아! 내 맘속에', 금요일 호산나찬양대와 시온찬양대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토요일 베들레헨찬양대 '믿는 사람들이 군병 같으니'까지 주관 찬양대원의 헌신으로 흥해를 건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군악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성공적인 흥해작전이 되어서 모두가 흥해를 건너는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바치는 소중한 행위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며 그

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흥해작전에서 찬양은 부흥을 위한 힘과 기초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교회의 단결과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부흥의 기운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로써 빛이 되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찬양과 흥해작전을 통한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 가족분들과 함께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기적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서울교회의 부흥과 찬양의 향기로 가득한 특별새벽기도회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가브리엘찬양대



할렐루야찬양대



임마누엘찬양대



베들레헨찬양대



호산나찬양대



시온찬양대



은빛찬양대

### 새 가족 환영회

## 새 가족 환영회, 그 천국 잔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준목 안수집사  
(새가족부 교사)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벧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싸온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자들에게 영생의 양식(Panis Angelicus)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천국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삶

에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서울교회 새가족부는 지난 3월 26일(주일) 손달의 위임목사님을 모시고 5주간의 새 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여덟분의 성도를 위한 작은 식사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참석하신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6월 25일(주일), 2023년 두 번째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환영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하며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새가족부 교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살롬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분기마다 준비되는 천국 잔치가 차고 넘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 모두 허리를 졸라매고 복음의 나팔과 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시다.  
Soli Deo Gloria !



2023 1분기



가족 환영회



## 새벽기도의 정착



평양 장대현교회 전경과 성도들



길선주 목사

한국의 새벽기도회는  
 선교사들의 제안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발하였던 것  
 .....  
 개인적이고 사적인 소원만을 빌었던 무속과 도교와 달리  
 기독교의 새벽기도는  
 교회와 민족공동체를 위한 기도로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세계에 알려져 있다. 교파나 지역, 그리고 개교회의 문화 등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주여 삼창’에 이은 통성기도는 한국교회의 특색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아 왔다. 또 외국의 교회들에 비하면 기도모임 자체가 자주 있다. 그중 거의 매일 새벽마다 열리는 새벽기도회가 말로 한국교회가 가진 기도의 열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새벽기도회가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까지 발견된 기록으로는 1898년 2월 황해도의 강진교회 겨울 사경회에서 있었던 새벽기도회가 최초이다. 이 사경회의 강사로 참여했던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아침 해가 올라오기 훨씬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공부하는 소리가 옆방에서 들린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보면 새벽기도회는 선교사들의 제안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발하였던 것 같다. 이후 여러 지역의 사경회에서 비슷한 새벽기도회가 때때로 있었다. 1901년에도 사경회를 인도하던 선교사가 새벽 4시에 한국인 신자들이 성경공부를 시작하는 소리에 잠을 깬다는 보고서를 썼다.

새벽기도회가 처음으로 정식 순서가 된 것은 1903년 12월 31일부터 2주간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평양지역 사경회이다. 이 사경회는 기도의 필요를 느끼는 참석자들을 위한 공식 순서로 새벽기도회를 운영하였다. 당시는 러일전쟁 이후 국가의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벽기도회에서는 개인적 간구와

함께 교회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드러졌다. 그 밖에도 1904년 이화학당 학생들의 사경회와 1905년 송도의 부인사경회에서도 새벽기도가 있었다.

이 시기의 새벽기도는 사경회 기간에만 1-2주 운영되는 한시적인 기도회였다. 이 새벽기도회가 교회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909년의 일이다. 재미있는 것은 두 달이 넘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새벽기도회를 처음 도입한 것도 장대현교회라는 사실이다. 처음으로 사경회의 공식순서로 새벽기도를 운영한 것도, 또 처음으로 사경회 참석자가 아닌 교회 전체 교인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새벽기도회를 운영한 것도 모두 장대현교회이다. 교회 사학자들은 이렇게 장대현교회가 새벽기도의 역사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당시 장대현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주 목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도교에 심취했었다. 그는 도교식 수련을 통해 초인적인 능력을 얻고 ‘도인’의 칭호를 얻었던 사람이었다. 1894년 청일전쟁 때문에 피난을 갔다 1896년 평양에 돌아온 길선주는 같이 도교 수련을 하던 친구 김종섭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보다 영혼의 깊이가 깊어진 것을 보고 놀랐다. 김종섭의 전도를 받아 도교의 신인 상제에게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인지 묻는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던 길선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도교의 신에게 기도하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만난 독특한 사례이다.

그리고 평양에는 길선주 같은 도교 출신 신자들이 꽤 많았다. 다음은 언더우드가 만든 찬송가인 <찬양가>(1894)에 수록된 이래 1890년대에 널리 불렸던 한국인이 만든 찬송가의 가사다.

“하늘엔 곤찬코 장생불로, 신체가 왜하야 장생불로, 괴롭고 힘들어 세상사람 짐졌네, 하늘엔 즐거워 장생불로”

기독교의 영생을 도교의 개념인 ‘장생불로’로 바꿔 부른 이 찬송은 이후 기독교의 영생과 도교의 장생불사 개념이 다르다는 기독교 언론의 지적을 받으며 사라져갔다. 교회사 학자들은 도교 출신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도교적 영성의 기독교화가 일어났다고 보고 한국교회의 새벽기도회 역시 도교와 무속의 새벽기도를 기독교화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무속에서 새벽에 정한수를 길어 천지신명에게 치성을 드린 것과 도교 수련법의 하나인 칠성신 새벽기도가 성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던 습관과 융합되어 새벽기도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새벽기도회가 전통종교의 형식을 빌려온 측면이 있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은 확연히 달랐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소원만을 빌었던 무속과 도교의 새벽기도와 달리 기독교의 새벽기도는 교회와 민족공동체를 위한 기도로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길선주 방법’이라고도 불렸던 새벽기도회는 백만민구령운동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되어 한국교회 전체의 기도회로 자리 잡았다.



## 카이로스, 그 특별했던 시간들



고려화 성도  
(청년부)

지난 주일 청년부 선교 리더양성 교육인 카이로스 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매주 청년부 모임이 끝나고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카이로스 훈련에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교의 참 의미와 세계 선교 역사를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저희에게 세계 복음을 하명하고 계심을 배웠고,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주어지는 숙제가 버겁기도 했지만, 교육이 거듭될수록 배운 내용들을 주중에도 곱씹으며 일상생활에 대입해 보려 노력해 보기도 하고, 숙제를 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의견을 청년들과 나누고자 주일이 더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주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 말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도 하며, 저희 카이로스 팀은 더욱 돈독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과정을 통해 서울교회 청

년들 마음에 거룩한 작은 불씨를 피어오르게 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분쟁과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주님께서는 저희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카이로스 훈련을 기도와 후원으로 지원해 주신 권소희 권사님, 김승록 장로님, 김혜연 장로님, 노제현 장로님, 안인호 장로님, 오명걸 집사님, 오윤걸 장로님, 장윤기 집사님, 최근우 집사님, 현종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리더양성 교육 수료식



팀별 토론 학습



지역 식사 교제

## 지난주 우리 교회는...



사라전도회(회장 : 이영희 은퇴권사)는 우리 교회 가장 연장자인 노인덕 은퇴권사님을 심방했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2-10 남자다락방은 홍해작전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8층에서 다락방 모임을 가졌습니다. 직장으로 평일에는 모이기 힘든 여건에 홍해작전을 맞아 함께 모여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해작전이 진행됨에 따라 교육부서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일 유치부(부장 : 한대석 안수집사)는 유치부 어린이들과 함께 2023홍해작전 주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를 다양하게 꾸미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 2023 성경암송대회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 70인전도대 6월 전도 일정

날짜	주일 (오후 1시-2시)	날짜	수요일 (오후 1시-2시)	날짜	토요일 (오후 1시-2시)
				6/3	빌립 안드레 베드로
6/4	자원자	6/7	도르가 루디아 보비	6/10	바울 엘리야
6/11	자원자 마리아	6/14	한나	6/17	모세
6/18	자원자	6/21	에스더	6/24	이삭
6/25	자원자	6/28	리브가	홍해작전본부팀	



6월 10일 토요일방전도  
홍해작전본부팀과 바울선교회



6월 14일 수요일방전도  
한나전도회

### 식사 제공

- 2교구 여현주 은퇴협동권사  
(부군 정해후 집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6월19일	월	시 32-35		6월19일	월	고전 12-16	
6월20일	화	시 36-39		6월20일	화	고후 1-13	
6월21일	수	시 40-44		6월21일	수	갈 1-6	
6월22일	목	시 45-50		6월22일	목	엡 1-6	
6월23일	금	시 51-56		6월23일	금	빌 1-4, 골 1-4	
6월24일	토	시 57-62		6월24일	토	살전 1-5, 살후 1-3	
6월25일	주일	시 63-68		6월25일	주일	딤후 1-6, 딤후 1-4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각종 질병과 문제와 상황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천국백성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소서.
2. 시대와 문화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전하는 서울교회와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파송선교지와 농어촌교회에서 헌신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3.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성숙하게 도우시고,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가 되도록 친히 다스려주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쟁과 분쟁과 고통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소서.

## ■ 섬기는 분들

◇ 손달의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지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광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예언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 서울교회QR코드



## ■ 교회 오시는 길

